

계시판



한솔가족 위안행사 성남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12월 9일 '한솔가족 위안행사(사진)'를 열고 복지관 식구 및 자원봉사자, 이용자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031)716-4215

장애인복지관 감사잔치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상호)은 12월 9일 시흥시 거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3004 감사잔치'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먹거리 장터, 문화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031)431-9114

불교교리강좌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은 12월 7일 김재일 법사의 지도로 '불교교리강좌' 3개월 과정 강의를 시작한다. (02)732-1206

장애아 놀이교과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명궁)은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우리가족 행복키우기'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아동과 부모 간의 놀이방법 교육과 포크댄스 강연 등을 진행한다. (02)989-4214

주민회합미당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은 12월 7일 '가족 송년 잔치'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화합의 한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02)2282-1100

동계방학 사회복지실습생 모집 동봉서원종합복지관(관장 전승범)은 12월 24일까지 동계방학 사회복지실습생을 모집한다. (02)3494-4755

20면 상식 퍼즐 정답

석	상	회	호		
보		법	신	불	
상		부	지		
결	규		사		
	장		리	티	
	각	골	난	망	울
			이	습	



지하철 홍제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라파엘' 팀 남미 연주자의 모습.



이수역에서 브레이크 댄스 공연을 보여주고 있는 '부기다운' 팀. 사진제공=레일아트

지하철에서 여유를 즐긴다?

세계 각국 전통음악 · 댄스공연 자유롭게 열려

지하철에서 즐기는 문화공연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올드 페스티벌'. 사진제공=레일아트



'잉카 엠파이어' 의 서울역 공연.



서울 사당역에서 가요곡 연주를 하는 '12현'. 사진제공=레일아트

11월 23일 수요일 6시 지하철 3호선 홍제역. 퇴근 시간 무렵에 어디선가 라틴음악 소리가 들려온다.

관조를 입고 땀이 났던 모자를 쓴 채 작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주위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더욱 신나는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목청을 높인다. 피곤한 퇴근길이지만 사람들은 안데스 산맥에서 온 이방인의 구성선 음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미소를 짓는다.

같은 시간, 서울과 부산의 다른 지하철역 몇 곳에서도 각기 다른 공연이 펼쳐져 퇴근길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은 남미 음악, 한국 음악, 락 공연 등의 음악 공연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브레이크댄스, 어르신들의 포크 댄스 등 다양하게 펼쳐졌다.

가끔은 음악이 듣고 싶고 문화 공간을 이용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도 여의치 않고 찾아 가는 길도 너무 멀다. 게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공연'은 안성맞춤 메뉴다.

대도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단연 지하철이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사

람들로 꽉 메워진 객차에 들어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기란 쉽지 않다. 뻘뻘한 일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하철 공연 한 소절은 '내 마음에 여유를 찾아주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

지하철역 공연은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나는 길에 '한번쯤은' 보고 듣게 된다는 점에서 이점만으로도 매력적이다. 게다가 프로그램들도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다는 점에서 '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느끼게 한다.

또 공짜다. 그렇지만 아주 공짜는 아니다. 길을 멈추고 있을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만 지하철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집에 가는 길, 종종걸음으로 바쁘게 집으로 향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좋은 공연을 한 번 보고 듣는 것도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다.

지하철에서 공연하는 팀들에게 조그만 시골 기차역 등에서도 서울 지하철역의 공연을 듣고 싶다고 요청하려면 홈페이지와 대표전화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 (02)6211-2132-3 http://www.railart.co.kr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지하철 문화공연 장소 · 시간

서울	1호선	서울역(상설·매주 월요일과 평일 3시~5시), 석계, 왕십리, 종각, 종로3가 등
	2호선	사당(상설·매주 토요일 저녁,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 진행), 을지로입구(상설·토요일 오후 2시 클래식과 연주 위주), 건대, 대명, 신림, 왕십리, 을지로4가, 합정 등
	3호선	교대, 연신내, 충무로, 홍제 등
	4호선	사당(상설·매주 토요일 저녁, 이외에도 다양한 공연 진행), 이수(상설·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락 공연 주류), 노원(상설·매주 토요일 오후, 춤과 무술 공연 위주), 삼각지 등
	5호선	합정(상설·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종합공연), 왕십리, 천호 등
	6호선	합정(상설·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종합공연), 태릉입구(상설·매주 월요일 저녁, 종합공연), 삼각지 등
	7호선	이수(상설·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락 공연 주류), 태릉입구(상설·매주 월요일 저녁, 종합공연), 강남구청, 학동 등
부산	1호선	서면(일시는 확정되지 않음. 음악공연 및 부산 'Rail Art' 문화보급을 위한 종합공연)
인천		부평(매주 목·토요일, 서울과 인천광역시들의 다채로운 공연)
기타		철도청 역사, 한국공항공사 청사(각주 금요일), 대구 중앙로역, 대전역, 서대문역 등

교양 · 오락 아우른 포교방송 강화

BBS 12월 5일 가을 프로그램 개편

불교방송(사장 이성인)은 12월 5일부터 가을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의 두드러진 특징은 오락과 교양을 아우른 포교방송의 강화다. 편성 비율은 포교 62.87%, 교양·오락 26.98%, 보도 10.15%로 구성됐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살며 생각하며' (월-금, 23:00~01:00)와 파노라마 주간 기획 '야단법석(토, 18:15~19:00)' 등 2개 프로그램이 신설됐고, '뮤직 N(월-일, 23:00~01:00)' 'BBS일종 토론(토, 18:15~19:00)' '금강경 독경(일, 06:25~07:00)' 등 3개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시간대를 옮긴 프로그램은 종전의 일요일 오후 5시 10분에 방송됐던 '오늘을 이끄는 불교'가 토요일로 요일대를 옮겼다. '오늘은 좋은날(월-토, 6:20~07:00)' '마음으로 듣는 음악(일, 22:05~23:00)' 등 4개 프로그램은 방송시간이 늘어났다. 시간대를 축소한 프로그램은 '불교강좌(월-일, 06:00~06:20)' '무명을 밝히고(토, 17:10~18:00)' 등 3개 프로그램이 각 5분~10

분씩 방송시간을 줄였다. 이 밖에 진행자가 바뀐 프로그램은 '트롯시대(월-일, 19:00~20:00)'와 '뮤직펀치(월-일, 12:10~13:00)'로 가수 도현아씨의 방송인 전성길씨가 각각 진행 맡았다.

신설 프로그램 '살며 생각하며'는 요일별로 정치·경제·문화를 포함한 시사문제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리포팅하는 물론 우리 이웃들의 삶과 소외계층의 삶을 직접 취재자와의 전화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또 파노라마 주간기획 '야단법석'은 저명인사들의 토론이나 세미나를 선별해 스튜디오와 현장 녹음을 병행, 시간과 공간적 제한으로 듣기 어려웠던 정·재계 인사들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전시

백제관음 신비로운 미소

도학회 개인전 '동주', 관훈갤러리

백제관음의 신비로운 미소를 만나자. 도학회사의 작품전 '동주(東注)'가 11월 30일~12월 6일 서울 관훈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되는 작품은 '관음보살상을 다시 만든다'. 이 작품은 일본 법흥사에 있는 '백제관음'의 모자(模倣)이다. 백제관음은 7세기 초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불상이다.

도학회는 이번 모자를 통해 백제관음이 오히려 고구려적 양식을 많이 채택했다고 주장한다. 머리의 보관은 고구려의 '불꽃꽃음무늬보관'을 답습했고, 복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양식이라는 것이다. 5각형 대좌 역시 '5'를 중시했던 고구려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며 광배의 운기문(雲氣紋) 역시 고구려 풍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미켈란젤로와 그가 사랑했던 카발리에리, 비토리아를 조각한 '미켈란젤로 삼존상', '동양의 물을 끌어들이는' 의미의 '동주', 'Avarokitesvara(관음)'를 새긴 '자소상' 등이 선보인다. (02)733-6469



백제관음을 묘사한 '관음보살상을 다시 만든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감성의 빛으로 화두를 녹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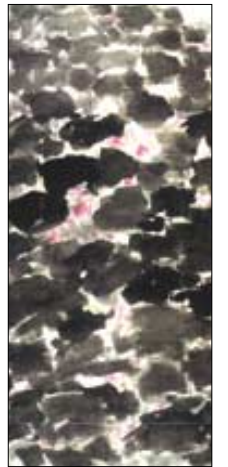
김대열 '물소리 · 자유자재-감성과 화두'

'감성의 에너지로 화두를 녹이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 불리는 김대열 교수(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과)의 작품전이 11월 30일~12월 6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연화세계, 물은 청산 밖으로, 산 밖의 산 등 물과 산, 꽃으로 집약되는 주제를 단순한 붓질로 표현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수묵화에서 담채화에 이르기까지 정제된 김대열의 선이 화폭을 가득 채운다.

김대열 교수는 "선(禪)도 예술도 인생의 체험이며 나의 본성인 자아를 보는 것이기에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위하여 발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닌 발을 보아야겠다"고 작품전에 앞서 소회했다.

미술평론가 윤범모 교수(경원대 미술대 회화과)는 "김대열 화백의 근작은 자유자재의 세계를 자랑하기 때문에 일말의 신랄"이라며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일군 어떤 사유의 흔적이 남아있는 구도행과 같은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02)736-1020 강지연 기자



김대열 작 '연화세계'.

방송 프로그램

28일 14:05 남만리다오	28일 21:10 한국의 명찰
29일 11:05 아름다운 초대	29일 02:40 불교TV스페셜
30일 10:05 BBS신생상담실	30일 15:50 열린미당
1일 09:05 행복한 미소	1일 19:30 TV법회
2일 21:05 영화음악실	2일 08:20 산중대담
3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3일 07:30 조선불교탄일사
4일 07:05 사랑의 정경다리	4일 16:50 디스커버링부디춤

하이라이트

- 불교방송**: 불교 음악의 세계(12월 4일 18:15~19:00) '세계 불교음악 백화집'에서 불교음악의 모든 것을 만나보는 시간. 찬불곡과, 불교관련 명상음악, 찬불동요, 중국·타베트·베트남 등의 불교관련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불교음악 한 소절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불교텔레비전**: 임영란 장미희의 행복충전(12월 4일 21:45~22:45) 연이 계속의 입담으로 통하는 임영란 장미희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난방기 특별보급 행사

마하몰에서 열효율이 좋은 신일산업 난방기를 사찰과 불교단체에 특별가로 보급하고 있다. 마하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난방기는 연화1호(22평형)와 연화2호(32평형) 두 가지로 열효율이 좋고 그을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가격은 연화1호가 85만원에서 할인된 69만원, 연화2호는 98만원에서 할인된 79만원이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